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개역, 신명기 26:1~11]

다 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야?”는 말을 듣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 십일조 매달 내면서 추수감사절에 무슨 추수감사헌금이냐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니까 그냥 감사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에 헌금한다 하니까 그냥 헌금하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은 그렇게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추수감사절 잘 지내고 헌금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옆구리 콧 찌르면서 말합니다. “농사 짓냐? 농사도 안 지으면서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도 그럴 것 같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것 헛일이잖아? “봉급쟁이는 매월 월급 받으면 십일조 다 했잖아. 그런데 무슨 추수감사헌금이냐?”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아무 생각없이 열심히 교회생활 하던 분들이 간혹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그 때까지 잘 해오던 것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파들이 득세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구원받았느냐?” 자신있게 “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받았느냐?” 말이 막혀 버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니까 하는 것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은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일입니다(2절).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제사장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정상적이라면 “제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제사장에게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시작됩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거둬들인 충실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첫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이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어릴 때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만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될 주제가 못되는 것 같아서 도망 다녔죠.

세월이 흐른 후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만아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위에 세

살 더 많은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누나하고 제가 여섯 살 터울이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았더니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첫째아들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보다 그렇게 마음을 놓았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잘 보는 겁니까? 잘못 보는 겁니까?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맏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잘못하다간 온 세상이 목사 천지가 될 판인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맏아들과 첫째끼는 대속하라는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는 대신에 속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속전이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속전을 드림으로 아들이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니까 무조건 목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꽤나 늦게 알았습니다. 일찌감치 가르쳐 주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첫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귀중품은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너희가 취하면 안된다. 그런데 어긴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아간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서 한 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얻은 탈취물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좀 나눠가지는 것이 정상이지, 그걸 하나님께 전부 드리라고 합니까? 아, 이렇게 몰인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다면 그건 하나님의 몰인정이겠지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한 번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아들을 다 내놓아라? 그게 아니고 맏아들 뿐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모든 새끼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요. 첫 새끼, 그것도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첫 새끼, 첫 노략물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 후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다 주고 “야, 하나만 줘” 하면 아이들이 잘 줍니까? 안 줍니까? 한 봉지 사다주고 그 옆에 앉아서 “하나 줘”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면 섭섭합니까? 주고 안 주고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에게 이런 것 하나 달라는 것은 어른들의 재미입니다. 안 준다고 뱅뱅 도는 애 따라 다니면서 하나 내 놓으라는 것 재미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궁색한 것이 있어서 내 놓아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선 인정하라는 뜻에서 만물, 첫 번째 성에서의 탈취물, 첫 아들, 첫 새끼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학교 다니다가 직장에 취직하면 첫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 빨간 내복을 사 드린답니다. 왜 그러세요? 모르긴해도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겠나 싶어요. 그 동안에 키우고 먹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빨간 내복 한 벌로 때울 수 있나요? 없지요. 그걸로는 안되죠. 그러나 그 빨간 내복 한 벌이 어머니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그 동안의 모든 고생을 아마 깨끗이 잊게할 만큼 큰 것일 겁니다. 계산이 되나요? 어머니들이 다 바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때에 그런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빨간 내의가 우리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은 빨간 내의가 필요하신 분은 아닐테니까요.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음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 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감사하는 기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한마디를 다시 더 자세하게 풀이해 주는 말입니다.

제사장을 가리켜서 무슨 제사장이라 부르는가 한 번 보세요. 3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나이다 하면 좋을텐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부르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않았습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적어도 구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 번 보세요. 그걸 찾는 즐거움, 그것도 성경 읽는 재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만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으로 잘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기도시간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사용되었던 것은 그 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5절입니다. '네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들 조상은 유리하는, 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고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크고 강한 민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거기서 압제받는 민족이었다고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압제받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갈 때 몇 명이나 갔습니까? 애굽에 70여명이 내려가서 400년 후에 적게 잡아도 200만이 넘어요. 70여명이 내려가서 그만큼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손에 추수한 만물 곡식을 들고 하나님께 가서 이걸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 누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아람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길 하는 것 같습니까? 아람에 가서 살았던 사람 야곱이죠. 야곱의 외가집이 밧단아람이라는 곳입니다. 아람 지역에 가서 20년을 살았고 거기서 처자식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식구들을 다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란 야곱의 일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많이 번성했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당했던 것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고통, 하나는 신고, 하나는 압제입니다. 우리말로 분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고통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신고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압제는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노예신분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통을 애굽에서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이 세가지 고통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노예같은 신분, 이것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좀 조용합니다만 몇 년 전에 40대 돌연사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40대 돌연사의 주원인이 뭐니까? 스트레스죠. 오죽하면 저하고 같이 교회생활 하던 남전도회에서 월례회 때 무슨 안건이 나왔는고 하니까 집이나 교회나 절대 연락하지 말고 우리 한꺼번에 하루쯤 쉼 사라져 보자. 왜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 크니까 마 아무 소리하지 말고, 어디 가는지 알리지도 말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앉았다가 우

리끼리 한 번 웃고 떠들다 내려오면 어떻겠느냐? 이게 월례회 안건에 나왔습니다. 전 그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40대 돌연사라는 것이 말로만 들었는데 스트레스를 받기는 엄청나게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정에 돌아오면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좋지만 가정에서조차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눈치를 봐야 합니까? 대답하면 안되죠. 적어도 가정에서만은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안 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이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것들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라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라는 것입니다. 뭘 들고요? 만물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까?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농사짓기에 훨씬 불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농사지을 곳이 별로 없어요. 비가 넉넉한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것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간신히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농사짓기에 결코 적합한 땅이 아님에도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성경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 것은 토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후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단 한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지 잘 알기는 어렵지만 한가지 짐작이 가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손놓아 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우리처럼 물을 많이 받아 놓고 가두어 두고 농사짓는 곳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조금씩 조금씩 주어지는 그 비,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이슬이 농사에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조금만 끊어진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땅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자체가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복된 삶은 아닙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을 감사하는 날인가 잘 보세요. 단순히 추수하고 얻은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고, 압제받는 애굽에서 구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본 내용입니다. 떠돌아다니던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 이곳에 정착케 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농사도 안 짓는데 뭘 감사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념일도 많이 만드셨고 기념물도 많이 세웠습니다. 툭 하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기념하라 하셨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만찬을 계속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 찢고 돌아가셨음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성찬예식을 주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뭘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을 우리 삶에 한 번 적용시켜 봅시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을 얼마나 얻었고 올해 농사는 아니지만 올해 얼마나 돈을 벌었고 그래서 보니까 아,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고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효자제일교회 역사를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고 겨우 7, 8가정이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자리가 비좁은 이 예배 광경을 보기만 해도 감격스럽지요? 그런 아픔들이 있었던 분들은 몇 년 전에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감사하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각자 한 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모여 있는 성도님들은 예전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전에 그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느냐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고생스러웠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집이건 어디건 음식투정을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 못먹고 밥 대신에 술찌기 먹고 학교 갔다가 선생님에게 얻어터진 친구가 있습니다. 왜 얻어 맞았겠어요? 조그만 녀석이 아침부터 술 먹고 온다고요. 밥이 없어서 그것을 먹고 갔는데 야단 맞고 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반찬이 좋으니 나쁘니 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이든 받아 놓으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추수감사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출애굽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출애굽 사건인지 꼭 되돌아 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려고 하니까 10절을 봅시다.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을 제사장에게 다 고하고’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 왔나이다’ 그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신고식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이 만물 곡식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께 신고를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신고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끝납니까? 11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하고 즐거워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함께

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님

추수감사절에 손님 없으면 어떡하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직자

여기 레위인을 성직자라고 하시면 그 다음 줄 보세요. 12절 중간쯤에 ‘마침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어떤 사람입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

과부하고 고아는 추수할 게 없는 사람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다른 말로는?

불쌍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레위와 객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 뒤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과부라고 해서 현대식 과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혼자서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 과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인하고 과부하고 고아를 같은 급수에 넣습니다. 결국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할 일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불쌍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방법입니다. 전도사는 레위인 측에 들어가는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성전에 안 나오고, 툭 하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어 버리면 레위인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죽겠네요. 아무도 제사 드리러 안 나오고 아무도 하나님께 안 나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발 고민 좀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으라는 얘깁니다.

제사장이 죽었다더라! 레위인들이 굶어 죽더라! 그러면 우상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굶어 죽는다더라 불쌍해서 곡식을 갖다 줬더니 “우리는 이것 못 먹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 못 먹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더라.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레위인이 죽어야 하고 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독하심에 대하여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뭐가 지독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걸 이중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로서 정 안되면 제사장이 죽고 레위인이 죽으라는 얘깁니다.

애기가 조금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과부와 고아를 대접하듯이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깁니다. 전도사 대접하라는 얘기고 비슷하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서 대접을 얼마나 받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할 정도로 전 기분이 좋습니다. 주일에만 설교나 성경공부를 6번내지 7번이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뭔가 한마디 할려다가 안 하고 가시는 것도 훌륭한 대접입니다. 무슨 말을 할려다가 가는지 대충 알 것 같거든요.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빼 놓고...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마운 답변입니다.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부형이 가끔 선물이다 뭐다 하고 찾아오는데 그거 괴롭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는 일도 쉽지 않고 받은 것 돌려주기도 쉽지 않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되돌려 주었더니 “작다고 그러냐?” 하면서 곱빼기로 다시 보냈어요. 어떡합니까? 섭섭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일일이 편지를 다 써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구구절절이 해명을 다 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구구절절이 나의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란 이런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다 적어서 되돌려 보내는데 몇 번 그러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피하고, 말리고, 거절하고, 돌려보내고...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도 학부형에게 대접 잘 받았다고 기분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되고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선물을 받아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꾸 내놓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 이렇게 어설픈 사람을 전도사라고 생각하고 이런 대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 고마워서... 혹시나 제가 실수를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고맙다고 전화 잘 못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받아 놓고 입 짹 뉘어버리더라.” 이러지 마세요. 고맙기는 한없이 고맙지만 부끄러워서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진짜 고마웠던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사 대접을 제일 잘 하는 것이 주일 오후에 집에 가서 한숨 자다가 피곤한 몸 끌고 성경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게는 그 분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성경 배워야 된다면 기를 쓰고 오시는 분이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사님 계실 때 본전 빼야 된다.”면서 애를 둘이나 들쳐업고 뛰어오시던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도사를 레위인이라고 친다면 저는 여기 나오는 레위인보다는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유대인들이 레위인 대접하는 방식보다는 “공부합시다!”고 할 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제게는 가장 좋은 대접입니다. 그것보다 더 전도사 대접을 잘하는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번에 이런 말씀 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 보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이 아마 가장 전도사 대접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번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읽어보았더니 몇 번 나오는데요?” 하는 대답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한 번 읽어볼려고 했는데 중도에 말았던 분들이 아마 더러 게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 애긴데 한 번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도사 대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뭣 때문에 즐거워요? 올해 소득을 많이 주셔서요? 그것도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꼭 기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그 죽은 독생자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준비 잘 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합시다.